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각종 시찰, 대학방문 등을 통한 동세대와의 교류, 특강 청강 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일본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향후 한일 간의 상호 이해 촉진과 신뢰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일본의 대학생 등 90 명
파견 (오프라인) : 일본의 대학생 등 89 명

【방문지】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경기도 성남시 90 명
파견 (오프라인)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부산광역시 89 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 3월 1일 (토) 한국 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특강 청강
- 방한 프로그램 :
 - 3월 9일 (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 3월 10일 (월) 【특강】 "세계 속의 일본과 한국", 【예방】 한국국립국제교육원,
【학교방문/교류】 동국대학교, 【특강】 "한·일콘텐츠산업의 현재와 미래"
 - 3월 11일 (화) 【시찰】 용산전쟁기념관, 【시찰】 오두산통일전망대, 【문화체험】 월드케이팝센터
 - 3월 12일 (수) 【기업방문】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시찰】 서울시청, 【시찰】 경복궁
 - 3월 13일 (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동, 【문화체험】 한지공예, 한복, 【시찰】 경기전,
【문화체험】 한옥스테이
 - 3월 14일 (금) 부산광역시로 이동, 【학교방문/교류】 부산대학교,
【특강】 "부산에서 본 한일 교류사", 성과보고회
 - 3월 15일 (토)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5년 3월 10일
【특강】 "세계 속의 일본과 한국"



2025년 3월 10일 【학교방문/교류】 동국대학교



2025년 3월 11일 【시찰】 용산전쟁기념관



2025년 3월 11일 【시찰】 오두산통일전망대



2025년 3월 12일
【기업방문】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2025년 3월 13일 【시찰】 경기전



2025년 3월 14일 【학교방문/교류】 부산대학교



2025년 3월 14일 성과보고회

3. 참가자 소감 (발체)

◆ 일본 대학생

전쟁기념관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배웠는데, 전시물 중에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무기들과 당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안내판들이 있어 흥미로웠다. 또한 질문에 대한 가이드분의 답변도 현재의 한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다. 그 후에 방문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북한 주민들과 건물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과 북한의 사회격차를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귀중한 경험을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 일본 대학생

방한을 통해 느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매우 따뜻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경험은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이었다. 국경을 넘어 자신의 몸으로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 일본 대학생

오두산통일전망대의 망원경으로 본 북한의 건물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실제로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곳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어렵고, 이러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감각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 일본 대학생

동국대학교에서는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재미있었다. 일본어를 매우 능숙하게 구사하고 이번 봄부터 일본 대학으로 교환유학을 하게 되는 학생과도 만났는데, 나도 한국어를 더 공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동세대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각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게 됨으로써 상호이해를 깊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일본 대학생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발견이었다. 거리에서 내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고, 일본 음식 가게가 많이 있고, 카페나 상점에서 일본 음악이 흘러나오는 등 일본을 느끼는 순간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 양국의 젊은이 문화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정치적인 대립이 있더라도 민간레벨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 일본 대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의 현대적 모습과 역사적 배경을 배우는 가운데, 현재와 과거가 특히

전쟁사를 통해 교차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일본사를 선택했었는데, 일한의 전쟁사에 관한 지식은 대단히 한정적인 것이었다. 앞으로는 공부 부족을 반성하고 일한관계를 한층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한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양국의 시점에서 배우고 싶다.

4. 한국 측 소감 (발체)

◆ 한국 측 기관 담당자

이번 프로그램은 한일 대학생 간 교류, 한국의 안보환경, 한국의 교육과 문화 및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연수를 통해 양국의 대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꼈다. 이 프로그램이 양국 간 이해 증진을 통한 협력기반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방문학교 관계자

한번의 만남으로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교류가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인연의 첫걸음이 되어, 앞으로 한일교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과 한국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버렸던 벽을 허물고, 서로에 대해 그리고 자기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p>2025년 3월 10일 (Instagram)</p> <p>특히 인상에 남았던 것은 대사관 담당자의 강의였는데, 현재의 국제관계에 관한 인식, 일본의 입장과 앞으로의 일한관계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국민감정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어, 국민감정이 정부를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가한 대학생방한단의 역할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는 것 같습니다.</p>	 <p>2025년 3월 10일 (note)</p> <p>동국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에서는, 우리 방한단이 각자 준비해 온 일본의 매력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일본을 보다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일본학과 학생들은 일본어 수준이 매우 높아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대화를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동국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자극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층 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p>
--	--

	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p>2025.03.11 (Instagram)</p> <p>전쟁기념관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하여 북위 38 도선을 경계로 나누어진 한반도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대해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병역제도와 북한과의 거리가 460m 인 지역도 있다는 것 등,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p>	 <p>2025년 3월 12일 (Instagram)</p> <p>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는 자동차 제조과정과 수소자동차의 시스템, 하늘을 나는 차 등 자동차업계의 현재부터 미래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쇼룸을 방문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자동차 사정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p>

6. 보고회에서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부산광역시)

 <p>Jenesys2024 大学生訪韓団</p> <p>1. 訪問の目的</p> <p>2. アクションプラン</p> <p>3. 訪問の「アポイントメント」確認の仕方</p>	<p>JENESYS2024 大学生訪韓団 (第2団)</p> <p>1 訪韓中に学んだこと・感じたこと</p> <p>2 アクションプラン</p> <p>3 テーマ関連のプログラムの感想</p>
<p>【방한 중의 배움】</p> <p>방한 전 나의 한국에 관한 지식은 역사 교과서와 한국 콘텐츠를 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직접 배우면서, 역사관과 가치관의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국 분들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 아픈 기억을 안고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에 공감했고, 이러한 자세를 접하면서 나</p>	<p>【방한 중의 배움】</p> <p>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과거·현재·미래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인 궁궐과 근대적인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거리가 인상에 남았고, 한국의 전통을 미래세대에 이어가고자 하는 자세에 감명을 받았다. 또한,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는 새로운 숨결을 얻으며 계승되고, 현대기술은 그</p>

는 일한 교류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테마에 관한 방한 중 발표】

●평화

전쟁기념관, 오두산통일전망대, 서울시청사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역사를 포함해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긴장관계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경제

현대자동차의 약진. 수소자동차, EV 의 개발을 통해 온실효과 가스배출 삭감 등과 같은 환경을 배려한 자동차개발 현장을 필드워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교육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시찰하고 각 대학의 학생들과 교류를 실시했다. 현지 교수님에 의한 강의를 듣고, 일한 문화 컨텐츠와 부산에서 본 일한교류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의 교육격차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안구과소지역의 교육격차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추측했다.

【액션플랜】

① 봉사활동단체에서의 소개

평소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국제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기. 또한, 이번 시찰의 모습을 좌담회에서 전달함으로써 일한의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② 대학의 홍보 WEB 사이트에 게재

지금까지 참여해 온 국제교류에 더해, 그 일환으로 이번 시찰을 WEB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홍보 역할을 담당하기.

③ 소속대학의 수업에서 보고회 실시

소속된 국제관계론 수업에서 성과보고를 실시하기.수업내에서 수요가 있다면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교수님을 초청하여 스터디를 개최하기

가능성을 보다 넓은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방한을 통해 배운 한국의 장점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한다.

【테마에 관한 방한 중 발표】

특히 전쟁기념관과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인상에 남았다. 전쟁기념관에는 한국전쟁에 징병되었던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듯한 문구들과 실제로 사용했던 물품들의 전시가 많이 있어서,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한 상세한 내용까지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이드의 이야기와 전쟁기념관에서 버스로 돌아올 때 군복을 입은 현역 병사들을 보았는데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함과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전쟁에 대한 사고방식에는 역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본 북한과 한국의 풍경도 전쟁과 평화를 생각하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망대에서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그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보면서 한국과 북한의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남북통일’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했다.

【액션플랜】

①대학 홈페이지와 대학 공식Facebook에 프로그램 개요를 게재

②소속하고 있는 지역의 국제교류협회에서 이번에 체험한 것과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대한 정보 발신

③함께 방한한 단원들과 방한 중에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